

<2010년 8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>

1. 내 마음을 모르는 자는 내 마음이라는 구멍에 실이 꿰어지지 않는 자와 같다. 그러므로 나와 같이 심정 맞춰 일을 할 수 없다.
2. 내 심정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는 100시간을 기도했어도 내 심정을 알고 1시간 동안 기도한 자만 못 하다.
3. 내 심정을 알고 나와 같이 한 것은 세상에서도 남아지고, 그것에 너에게도 영원히 유익을 준다.
4. 내 심정을 받으려면 작은 것도 내게 묻고 나와 같이 행하여라.
5. 내 원본을 보고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내 심정을 그대로 받는 것이 된다.
6. 내가 쓰는 글을 그대로 쓰고 내가 그리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듯, 내 심정을 그대로 받아 행하는 것이다. 이런 자가 내 심정을 받은 자다.
7. 매일 매시간 어떤 일을 할 때 사사건건 이같이 해야 한다.